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선교편지를 보내드립니다. 2024년 봄, 자그레브에 돌아와 있음에 감사합니다.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생명과 소망의 봄을 맞이합니다. 동역자 여러분과 선교 편지를 통해 교제함이 기뻐집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한 마음으로 교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선교편지의 기도 제목이었던 이곳 의료(병원)시스템 연계는 잘 이뤄졌습니다.

보험에서 검사, 치료, 처방약까지 모든 것이 세밀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까진 시간이 필요하고, 여전히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또한 염려치 않는 것은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와 예장유럽선교대회가 열린 불가리아 소피아를 다녀올 정도로 체력이 서서히 회복되어감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1. 현지 사역

자그레브 한글 학교는 봄학기에 40명의 학생이 등록함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마리아는 직장으로, 블라즈는 개인 사정으로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각 반의 담임이 되어 학생들을 매주 만나 가르칩니다. 이번 학기는 총 4개 반으로 운영되고, 안식년 동안 느슨해진 영적 환경을 추스르려 합니다. 함께 하는 현지 교사들인 다비드, 키아라가 신앙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섬겨주어 기쁩니다. 제 몸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학생들, 교사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나눔이 깊어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한글학교 교사들(다비드, 키아라)



학생들과 함께



봄학기 오리엔테이션



회화/문화 수업

자그레브 한인 교회는 지난 해 10월 예배를 재개 후, 새해가 되면서 정기 출석하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정기 예배와 찬양, 나눔, 기도, 애찬을 통해 예배를 다시 세워갑니다. 주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후 나들이



주일 예배(부활주일)

- 올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 로잔 대회에 참가하는 크로아티아 개신교 대표단을 주 후원교회인 충신교회(이전호 목사님)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 크로아티아 군선교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초 신년모임에 참석하여 올 해의 계획을 듣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 인접국 슬로베니아에 신임 선교사님 가정(이준희/박소은)이 입국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니며 기도하며 씨를 뿌린 곳입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오셔서 기쁩니다.
- 4월 2~5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되었던 예정유럽선교대회를 4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위기관리위원(전쟁/재난/복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 한인교회 예배처소인 자그레브 침례교회가 예배당 복구 및 리모델링, 그리고 임시 거쳐 이동 문제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발생한 자그레브 지진의 여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새 교회 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군선교회(MCFC) 신년모임



자그레브 침례교회 필립 목사님과 함께



슬로베니아 선교사님 가정



예정유럽선교대회(발칸선교회)

2. 선교사와 가정

일상생활에서 '여유' 와 '집중'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지내고, 운동(산책)이 중요해졌습니다. 날이 흐리지 않으면 거의 매일 산책을 하고, 꼭 해야 하지 않아도 될 것, 꼭 만나지 않아도 될 만남은 즐겼습니다. 2023년 크로아티아가 헝겔 국가가 된 후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가와 월세가 크게 올랐다는 점, 둘째,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의 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들어와 일반노동시장을 채웠다는 점입니다. 크로아티아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EU 가입 후 많은 크로아티아 노동자가 유럽으로 유출되었고, 그 빈 자리를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로 메우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이 2018년에 개관됐지만 지금까지 괄목할 상호 경제교류나 산업체 유치 등은 없으며, 저희는 어느덧 이 땅에 오래 산 한국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학업과 군 복무로 떨어져 지냅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등 졸업 후 아이들과 좀 더 함께 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쉬움에 남습니다. 큰 딸 영은이와 막내 영진이는 모두 대학 3학년이 되었고, 지역 교회에 출석하며 성실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 이삭은 지난 4월 병장 진급을 했고, 곧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기병과 외에 군중병으로 선출되어 상무대 교회를 섬기며,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딸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선거관리위원장



산책과 운동



교민 간담회

3. 기도제목

- 1)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2)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3) 학교와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4) 현지 교회, 군선교회, 현지 동역자들과의 협력과 관계 증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5) 영은, 이삭, 영진이가 선교의 2세대로 어디서나 쓰임 받는 자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 6) 후원 교회와 기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7) 장기적 사역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 올림
자그레브
2024. 5.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